

지역 매 아 리

# 김제시 내년 예산안 7297억원

### 김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김제시는 2018년 하반기에 신규 책정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14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진료절차 및 의료급여 상한일수와 관련해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 외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정보부족으로 제때에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교육은 총 130여명의 신규수급자가 교육에 참석하여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시간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교육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제시는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제도 안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고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불편사항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보건소, 금연 중간보고 워크숍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금연시도를 격려 관련 1차년도 중간보고 워크숍을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업의 중간보고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금연명품도시 선포(2015. 10.) 이후 다양한 전략과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복 14개 시·군 중 현재흡연율은 높고, 금연시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흡연 및 금연 관련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실시한 워크숍은 지난해 김제시 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전라북도의 김제시와 정읍시 간 현재 흡연자의 금연시도를 격려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해결방안 개발'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3년간)까지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다.

용역연구기관인 원광대 외대 예방의학 오경재교수 등은 주요 흡연관련 지표 분석,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합자료 분석 등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금연시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건강프로파일 작성, 금연과 사회적 지지관계, 금연과 사회자본의 관련성, 기관단체의 관계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형희 보건소장은 "민간단체와 공공의료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금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편성... 시의회 제출

김제시는 2019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7,29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8년 본예산 6,249억원보다 1,04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011억원(17.8%)이 증가한 6,682억원, 특별회계는 37억원(6.4%)이 증가한 61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재원은 지방세 422억원, 세외수입 175억원, 지방교부세 3,234억원, 조정교부금 115억원, 국·도비보조금 2,437억원, 순세계 잉여금 등 300억원을 활용했다.

열악한 지방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

해 각종 공모사업을 비롯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전년대비 15.5% 증가하여 역대 최대 확보기록을 경신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정책에 맞추어 청장년·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민생복지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특 6차 산업화 및 지역 인재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 민선7기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역점사업도 반영하였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612억원, 보육료 지원 84억원 등 전년대비 15.3% 증가한 1,70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14억원, 농촌생활환경경정비사업 58억원, 김제 선안 자연휴양림 조성 42억원 등 7.8% 증가한 1,421억원을 편성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역점을 두었으며, 민선7기의 첫 번째 본예산 편성인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을 위해 예산이 쓰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12월 4일까지 토양개량제·유기질비료·유기농업자재 접수

완주군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나섰다.

완주군은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유기농업자재 신청을 12월 4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주기 사업으로 2016년에 2019년도까지의 공급물량에 대해 신청을 받았다.

신청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을 경우 해당되지 않지만 경작지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을 변경한 후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2016년

도 신청기간 이후 신규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도 신청 가능하다.

기존 토양개량제는 친환경농가들의 사용이 불가했지만 2019년도에는 친환경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토양개량제가 등록돼 신청가능하다.

유기질비료를 희망하는 농가는 희망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와 공급물량 등을 작성해 신청이 가능하며, 귀농 등으로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내년도 공급시기에 농업경

영체로 등록될 수 있는 농가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작물생육·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및 유기농업자재원료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친환경농자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유기농업자재)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완주=이중복기자

# 완주군, 올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477억원 확보

###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달성 탄력... 3년 연속 500억 달성 기대

완주군이 올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에서 총 90건 477억원을 확보해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기틀마련에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중앙부처 및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11월 현재 90건 총사업비 850억원(국도비 477억원)을 확보, 연말까지 3년 연속 500억 규모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완주군 공모사업은 주민생활 기반(생활SOC사업 등)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지난 5월 지역 숙원사업인 노후상

수관망정비사업(297억)이 선정됐고, 9월 운주 기초생활거점 육성(40억), 10월에는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 야구장조성(42억), 용진읍 생활체육시설조성(150억)이 연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말산업특구지정(5개시군)과 농촌신활력플러스(70억원) 사업 등 고산6개면 지역의 활력이 될 사업들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공헌사업도 39건 10억원 가량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는 국립 완주문 화재연구소(280억 규모)의 완주 유치

를 확정해 가야·백제·후백제 등 지

역 내 문화유산 보존 연구를 통한 완주화 정립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신속한 동향 파악과 사업선정 평가를 위한 논리개발 타당성 용역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한 것이 큰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의 국가예산 확보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 성과직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군민 행복을 위한 국가예산 발굴 및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완주군은 지난 21일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제2회 완주 로컬푸드 요리경연대회'를 (사)세상을 바꾸는 밥상 공동체 부엌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 완주 로컬푸드 요리경연대회 성료

### 제철음식 발굴·활성화... 표고버섯 조림 최우수상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완주 로컬푸드 요리경연대회가 열렸다.

완주군은 지난 21일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제2회 완주 로컬푸드 요리경연대회'를 (사)세상을 바꾸는 밥상 공동체 부엌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로컬푸드를 활용한 제철 음식의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농림식품부와 완주군이 후원하고 완주푸드허브사업단이 주최했다.

요리 경연대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35명 중 5명을 선발해 본선을 펼쳤고, 이 결과 최우수상에 표고버섯 조림 운영회, 대상에 소고기 보양탕 정진민씨, 우수상에 버

섯모듬 장아찌의 문경순씨, 소고기를 사랑한 두부공주의 백정옥씨, 버섯치킨 리조또의 이보람씨가 차지했다.

경연대회 심사위원은 완주군 차경옥 계장, 용진농협 박선영 기능장,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한지수 본부장, 신소영 대리, 세상을바꾸는밥상 오현숙 대표로 총 5명이 구성돼 로컬푸드 주제 적합성, 재료 구성, 창의성 등의 심사내용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운영회씨는 "지역산재료인 표고버섯을 활용해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두 좋아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완주=이중복기자

# 김제시, 새내기 공무원 직무 역량교육

### 기본 소양교육·사업장 탐방

김제시는 신규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삼성생명연수원과 김제시 일원에서 역량강화교육 및 자체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임용된 공무원들에게 화합과 소통, 실무능력 배양, 미래비전 공유, 주요사업장 탐방으로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도 및 직무와 조직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1~2일차에는 박준배 김제시장의 새만금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직장예절, 친절마인드 함양, 봉사정신, 청렴, 공직가치와 좋은 삶 등 전문 강사

의 강의와 지평선산업단지, 민간육종연구단지, 새만금 일원 등 주요사업장 탐방, 로잉머신기구를 사용한 전선과 위문등으로 협동심과 집중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3일차에는 예산실무, 새물행정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전산보안, 인사복무관리 등 신규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직무교육과 지평선축제, 공무원복지제도 소개 등으로 진행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김제시의 미래 주역으로서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 서바이벌 레프팅/카약 스키/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질기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티 지역 취득

영국저지 요인 지역중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역중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